

海外農業資料16

폴란드의 農業問題와 그 展望

李 桐 弼 編譯



韓國農村經濟研究院

RP 2244

解題

1980년 여름 肉類價格의 간접적인 상승이 계기가 된 폴란드事態는 蘇聯의 軍事介入의 위협아래서도 계속 발전하여 事態가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世界の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원래 폴란드는 東歐圈에서도 農業의 社會化가 가장 뒤진 나라로 알려져 왔다. 社會主義政權이 수립된 직후에는 農業의 集團化가 강행되었으나 1956년의 폴란드暴動 이후 集團化政策은 대폭 후퇴하여 현재는 1,622萬ha (國土面積의 52%)의 耕地의 82%가 自營農의 수중에 있으며 12%가 國營農場이고 集團農場은 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폴란드農業은 社會化가 강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農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理由로는 社會主義社會의 高질적인 官僚主義와 낙후된 栽培技術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1976~79년의 農業伸張率은 1971~75년의 伸張率보다 5.2%밖에 늘어나지 못했고 年平均 穀物生産은 1976~79년에 1,980萬 t 으로 1971~75년의 2,100萬 t 을 훨씬 밑도는 것이었다.

폴란드에서는 또 農産物의 生産者價格이나 小売價格은 地方市場이나 소규모 私營商店에서 판매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共產國家와 같이 政府가 統制하고 있다. 牛肉의 경우 生産者價格은 1970~79년에 약 3배나 인상되었고 豚肉은 2배가 올랐다. 그러나 食品의 小売價格은 지난 12년 이상이나 묶여 있으며 食肉의 公定價格도 1968년 이래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小売價格은 生産費와 流通價格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그 차액은 政府의 補助金으로 메우지 않을 수 없었다. 1979년도의 食品에 대한 政府의 補助金은 1,600億 즐로티(1달러=3.32 즐로티)로 이 금액은 同年度의 政府預算규모인 9,860億 즐로티의 약 16.2%를 차지 했다. 政府는 國營農場의 赤字를 커버하기 위해 300億 즐로티를 지출하였고 작년에 문제가된 食肉 및 肉製品에 대한 價格補助金으로 1979년에 670億 즐로티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政府는 財政의 壓迫要因이 되고 있는 이 補助金을 줄이기 위해 우선 食肉價格의 간접적인 상승을 꾀하려다가 작년의 事態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이 책은 美国 캔사스대학교 政治学 教授이며 蘇聯과 東歐 農業 및 農民 問題會議 創始作인 로이 D. 레어드 博士와 美国 캔사스州立대학교 副教授이며 캔사스農業試驗所 研究員인 조셉 헤이다 그리고 農村問題와 蘇聯農業問題 專門家인 베티 A. 레어드가 공동 編著者로 되어 있는 "The Future of Agriculture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1977) 가운데 제6장 Prospects for the Future of Polish Agriculture (집필자는 Jacek I. Romanowski)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의 폴란드事態는 물론 폴란드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共產國의 農業問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1981년 7월

폴란드의 農業問題와 그 展望

- I. 폴란드 農業의 基本的 媒介變數
- II. 飼料作物과 肉類
- III. 폴란드 農業生産者の 類型
- IV. 國營農場
- V. 앞으로의 計劃과 展望

I. 폴란드 農業의 基本的 媒介變數

世界 第2次 大戰 이래로 폴란드 農業의 矛盾은 出演者와 觀客이 모두 演劇의 중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이스의 演劇에 비유할 수 있다. 폴란드 農業의 불가피한 目標은 궁극적인 社會化인 것이다. 폴란드 農業의 主役인 農民과 政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극적인 葛藤을 격화시키고 있다. 農業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集團農場의 農場員에 의해서가 아니라 私營農에 의해서 營爲되고 있고 政府는 經濟的 福祉를 그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폴란드 農業의 치명적인 문제는 政府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政府와 農民의 이 共産的 關係와는 달리 政府와 都市의 勤勞消費者와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훨씬 위협적이다. 1世代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農民이었던 이들 都市消費者들과 政府指導層과의 관계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기에레크(Gierek)가 집권한 이래 폴란드 政府는 農村을 社會化하기 위한 일반적인 압력과 함께 農業의 生産性を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農村의 社會化는 農業生産의 主役을 맡고 있는 私營農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目標은 쉽게 결합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政

策은 伸縮性이 있는 接近이 필요하다」고 말한 当局者의 말대로 폴란드의 農業政策은 政府와 農民 상호간의 必要와 그리고 상호간의 恐怖 사이에 均衡을 잡는 일종의 曲莖나 다름이 없다. 그것은 社會主義化되지 않은 農村을 노골적으로 억압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경제적으로 自活할 수 있는 私營農場이 1970년대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었다. 私營農場이 번영하게 된 한가지 이유는 「私營을 권장하면서 社會化(集團化)된 部門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두 가지 目標을 둔 새로운 農業政策의 결과이기도 하다. 폴란드의 “集團化”는 1956년에 폐기되었다. 오늘날 폴란드에서는 “社會化”란 用語가 덜 위협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政府가 艱難한 營農의 改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1972년 7월 3일자 美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紙). 그러나 이 「農民에 대한 支援」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폴란드農務省當局은 「우리의 法律은 個人所有制를 進歩와 社會의 利益에 바탕을 둔 간섭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변함도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어떻게 보면 폴란드農業의 갈등은 이 나라의 過去와 未來의 갈등인 것이다. 폴란드의 過去는 農民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向上의 길을 가로막았으며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만큼 土地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폴란드共産政權이 구상하고 있는 그 나라의 未來는 生産的인 集團農業에 두고 있다. 政府는 資本主義를 공공연히 허용할 수 없지만 生産을 위한 誘因은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私營農場을 소유하는 길은 2차 大戰 직후인 1946년의 土地改革으로 막혀버렸다. 50ha 이상 (포츠담協定에 의거하여 獨逸로부터 반환된 地域에서는 100ha이상)의 所有農地와 獨逸人의 所有農地, 「國家의 敵」이 소유했던 農地는 몰수되었다. 9.8百萬ha에 달하는 몰수된 農地 가운데서 6.1百萬ha는 農民에게 분배되었고 그 나머지는 國營農場이 되었다. 이 1946년의 農地改革으로 93.2%의 全國의 農地가 個人小農에게 분배되고 그 나머지가 國營農場이 된 것이다. 集團農場制는 그후인 1948년에 도입되었다. 이 集團農場制를 확대하라는 압력은 1950년 이후 가중되어 1956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폴란드의 集團農場數는 1 단계가 넘었고 集團農場의 農地는 全國農地의 9.2%, 전체 農民所有農地의 10%에 달했다. 또 國營農場의 農地占有率도 1956년까지 13.5%로 늘어났다.

그러나 1956년 10월에 일어난 事態로 執權한 고물카는 스탈린主義의인 前政權의 政策을 파악하고 集團農場을 대부분 해체했다. 1956년 이후 反政府的인 農民과 社會主義指向의인 政府間에 對決이 시작되었다. 官僚主義로부터 農民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는 없었지만 政府도 農業發展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實權이 없었다. 農村의 80%은 小農들이 차지했고 규모가 너무작아 經濟的 效率性이 없는 그 農場은 農村青年들이 都市로 빠져나가 老人들이 운영했다. 더우기 農民들의 農地는 실제로 경작할 수 없을 만큼 細分되었다. 農業에 영향을 미칠 實權面에서 보면 폴란드政府는 西歐諸國의 政府에 비해 사실상 덜 獨裁的이었다. 폴란드政府는 1963년에 農地가 더 이상 細分되지 않도록 이를 금지시켰다.

1967년 폴란드統一勞動者黨(PUWP)中央委 9차 總會의 決議에 따라 集團農場 해체 이래로 가장 광범위한 農村改革이 단행했다. 政府는 農地 整理의 必要性을 인정하게 되고 農業의 社會主義化 계획을 세웠다. 都市의 産業勞動者와는 달리 私營農은 社會保障이나 醫療保險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政府는 農民들에게 農地의 대가로 年金을 제공했다. 子弟들이 都市로 이주한 農민들에게는 農地가 일종의 準飢餓의 함정이 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수 많은 農民들은 政府의 措置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政府의 措置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農民들도 農場經營이 무실하다고 當局이 결정하면 農地를 政府에 팔지 않을 수 없었다. 그 改革은 農業經營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었으며 合法的인 農地取用의 先例는 西歐에도 많다. 都市에 대한 食糧供給의 계속적인 부족에 적면한 政府는 耕地의 生産性 提高를 위한 措置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政府는 國家土地基金이라는 特別留保地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農業上 限界地이거나 또는 어쨌든 政府가 입수한 土地로서 農耕地로 팔거나 貸與하지 않은 土地이다. 國家土地基金의 최대의 貸貸者인 동시에 貸借者는 國營農場이었다. 個人農場은 일반적으로 基金의 土地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1967년까지 私營農도 두가지 방식으로 國家土地基金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첫째는 農民들이 國家基金의 土地를 입수하거나 貸借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67년에 農民들은 60万ha의 基金土地를 國家로부터 貸借했다. 둘째는 은퇴한 農民의 土地나 取用된 土地는 基金이 引手한 다음 새 使用者에게 引渡하는 것이다. 私營農이 새 使用者가 될 수도 있지

단 集團農場이 인수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 土地移轉過程이 갖는 순수한 효과는 私營農을 회생시키는 대가로 集團農場의 耕地面積을 늘리는 것이다.

폴란드農業의 기본 課題는 國民에게 食糧을 공급하고 産業用 原料를 생산하는 것이다. 經濟와 人口成長을 위해서는 農産物 生産의 지속적인 신장이 요청된다. 1949년과 1970년 사이에 폴란드의 人口는 거의 8.4 百万名이나 늘어났다. 低開發國은 食糧消費에 대한 所得彈力性이 높지만 폴란드의 경우에도 증가된 所得의 많은 몫이 食品의 購入增加와 高價의 食品購入에 충당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生活水準이 높을 때는 증가된 所得에서 食品費가 차지하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 常例이다. 폴란드는 工業의 生産性과 所得이 農業生産性과 따라서 食品供給보다 빠른 속도로 신장하는 대표적인 共產主義國家인 것이다. 이것은 食品不足이 실질 所得의 신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소위 「經濟成長에 대한 農業의 障礙」로 이끌어갔다. 고물가政權은 貨金을 食品供給水準으로 억제하려고 한 반면 기에레크政權은 貨金上昇을 食品供給보다 빠르게 허용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食品價格의 上昇이 所得增加를 상쇄시키는 것이다」. 食品價格을 올리려는 기에레크政權의 企圖는 問題를 용인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폴란드農業의 食品供給의 實相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工業產品의 供給問題는 總産業生産에서 차지하는 農業關聯産業의 占有率이 계속 줄어들음으로써 적어도 완화되고 있다. 1950년에 32.5%였던 그 占有率은 1960년에 24.3%, 1970년에는 15.2%로 떨어졌다. 그러나 모든 工業製品과 서비스 需要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食品加工業의 占有率은 1970년에 거의 54%에 달했다. 食品과 農業原料의 供給增加는 工業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增加는 農産物의 増産과 流通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農産物의 需要側面에 관해서는 輸出部門의 必要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農産物의 輸出은 일부 農産物의 輸入費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발전단계에 있는 産業 자체가 費用을 부담할 수 없는 工業製品의 輸入 資金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것은 産業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事態인 것이며 工業의 發展에 소용되는 財政의 負擔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農産物輸出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經濟에 있어서의 農産物供給은 生産뿐만 아니라 流通에도 의존한다. 生計農部門이 여전히 큰 폴란드에서는 作物流通의 伸張은 生産伸張보다

빨라야 했다. 1950~52년과 1970년 사이에 總農業生産의 年平均 伸張率은 3.3%였는데 비해 流通은 5.5%였다. 이것은 最低 農産物의 流通占有率을 1950년의 60%에서 1970년까지 75%로 올렸다. 폴란드農産物貿易이 기타 東歐諸國의 農産物貿易과 다른 것은 폴란드에서는 協同組織 (특히 農業協同組合)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政府官僚의 직접적인 역할이 그만큼 적은 것이다. 폴란드의 農協은 대부분의 穀物調達을 감독하고 農協이 조달한 대부분의 生産手段을 農民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1973년 農産物調達에서 차지하는 農協의 占有率은 약 70%에 달했으며 農民에 대한 農協의 投資와 生産物 供給은 75%였다. 따라서 폴란드의 農産物貿易은 소규모 自營農이 지배적인 폴란드의 所有構造에 적응한 것이다.

食糧供給과 價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폴란드政府는 食品價格의 대폭 引上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政治的 不安과 指導部의 更迭을 초래했다. 고물카와 기에레크도 食品價格引上에 대한 대규모 抗議가 있는 다음에 執權한 것이었다. 1970년의 價格引上은 1971년의 經濟改革計劃의 序幕이었다. 이 당시에 引上된 價格을 보면 肉類와 肉製品은 평균 약 18%였고 小麥粉은 16%였다. 이 價格引上의 여파로 執權한 기에레크는 즉각 價格을 凍結시켰으나 그 이후의 價格引上을 막지 못했다. 이와 같은 價格引上은 食品의 流通量을 늘리기 위해 生産者價格을 올리는 效果가 있었다. 이 生産者價格 引上은 소기의 效果가 있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紙의 筆者도 「매우즈라는 農夫의 取入도 늘어나고…國家에 대한 의무적인 供出제도 폐지되어 1971년에는 50頭의 生豚을 市場에 내 놓을 수가 있었다」고 쓰고 있다. 1976년의 事情도 유사했다. 政府는 生産者와 消費者價格을 인상함으로써 需要를 줄이고 供給을 늘리려고 하였다. 畜産과 飼料生産農家は 政府調達價格의 引上으로 生産意慾이 높아졌으며, 調達價格의 引上으로 肉類供給이 증대되었다. 肉類需要의 伸張率을 둔화시키기 위하여 消費者에 대한 肉類價格을 35% 인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生産者價格의 上昇은 승인되었지만 대대적인 消費者의 抗議로 말미암아 消費者價格의 引上은 철회되지 않을 수 없었다. 政府는 生産者價格의 上昇이 특히 肉類의 生産을 늘려주고 需給의 불균형을 시정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폴란드의 經濟成長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農業生産의 伸張率이 적어도

年 3~4%는 되어야 하며, 肉類, 鷄卵, 채소, 과일과 같은 市場商品의 生産은 伸張率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기에렉스는 1971년에 열린 農業專門家會議에서 「市場商品에 대한 大衆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1~75년 計劃期間에 食品, 특히 畜産物의 35% 増産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의 農業成長率은 年平均 약 3%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주요 先進國의 成長率보다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生産性的 増大는 農業經濟에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農業生産의 규모와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논리적인 方法은 收量을 늘리고 作物構造를 바꾸는 것이다. 作物構造의 개선을 저해하는 要因은 많다. 그중의 한 要因은 勞動力과 機械가 없는 貧農이 農業에 주력할 의사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점이다. 農業生産을 저해하거나 또는 農業生産을 좌우하는 것은 氣候이다. 폴란드의 氣候는 農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投入財와 作業상의 신속성이 요청되며 따라서 收量에 변화가 있다. 1969년의 오랜 무솔과 1970년의 冷害로 폴란드의 農業生産은 3%의 成長率에도 미치지 못했다. 폴란드의 農業관계 學術誌를 보면 氣象에 관한 연구논문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71~75년의 5個年計劃은 畜産과 作物生産의 成長間의 불균형을 격화시켰다. 1971~75년에 作物의 收穫量은 11.6%가 늘어난 반면, 畜産은 29%가 늘었다. 이것은 飼料輸入이 2배로 늘어나 年間 700萬 t 이 되는데도 그 原因이 있었다. 畜産物의 生産이 더 이상 늘어나려면 적어도 作物, 특히 飼料作物도 그만큼 増産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土地로부터의 產出量을 늘리기 위해서는 化學肥料의 施肥量을 늘리는 길밖에는 없다. 農業이 발달한 포즈난 地區에서 질소, 인산, 가리의 施肥量을 ha당 263.2kg에서 320.5kg으로 늘려야 한다고 當局은 밝힌 바가 있다. 이밖에 作物構造의 변화, 耕作·收穫·保管方法의 개선과 二毛作의 活用도 계획되었다.

이리하여 폴란드의 農業은 土地의 所有制, 農場의 규모와 作物構造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増産의 壓力을 받고 있다. 그러나 政府가 私營農을 억제하고 社會主義의 견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政府가 消費者에게 적정한 價格으로 食品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政府의 후속 措置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消費者의

강력한 抗議 후에 취해진 신속한 價格引上의 철회가 폴란드의 어려운 실정을 잘 말해준다. 다음에는 폴란드의 食品가운데서 國民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肉類問題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飼料作物과 肉類

현행 5개년 計劃(1976~80년)동안의 畜産部門 成長目標은 16~18%였다. 畜産增加의 열쇠는 飼料供給을 증가함으로써 飼料不足 현상을 극복할 수 있으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의 實現을 위해서는 사료의 生産量뿐만 아니라 穀物植付面積 역시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飼料問題는 家畜類의 증가에 따라서 그만큼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飼料穀物の 植付面積을 늘린다는 것은 糧穀, 菜油, 果實, 蔬菜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産業用 作物의 植付面積이 감소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飼料作物 植付面積을 점약적으로 이용하여 사료를 증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폴란드의 家畜飼育受容力은 西部 지방의 포젠州에서 飼料作物이 재배됨으로써 증대되었다. 耕作飼料作物 뿐만 아니라 自然的인 牧草地까지 포함하는 飼料作物의 植付面積만을 고려한다면 大型家畜 1단위(예 乳牛 1頭) 所要面積은 1970년의 0.37ha에서 1974년에는 겨우 0.31ha로 줄어 들었다. 또한 飼料用 糧穀(주로 薯類)의 植付面積은 大型家畜 1단위당 所要面積이 1970년의 0.72ha에서 1974년에는 0.66ha로 줄었다. 바꿔 말하면 이는 포젠州에 있어서의 飼料植付面積當 家畜 生産性이 1970년에서 1974년 사이에 40.7%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家畜飼料 体系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飼料穀을 포함하는 영양분의 含有量이 높은 飼料의 공급이 또한 더욱 빠른 속도로 요구될 것이다.

폴란드의 방대한 牧草地는 사실상 거의 放置狀態에 있으며 개량된 것이 있다면 임시방편의 灌溉施設이 있다는 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牧草地에 灌溉施設뿐만 아니라 施肥까지 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家畜飼育의 受容力을 3배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草地改良으로 괄목할 만한 效果를 거둔 예는 西歐國家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케네드 B. 캄버랜드는 그의 報告書에서 뉴질랜드의 畜産發展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몇 년

동안에 걸친 景氣沈滯와 戰爭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등한시 했던 期間이 지난 뒤에 形勢는 돌변하여… 세계 제2차 대전 終戰 후에는 해마다 施肥를 하게 되었고… 신품종의 牧草, 改良家畜 그리고 보다 개선되고 集約的인 家畜放牧 体系의 改善과 집약적인 運用 그리고 化学肥料의 이용으로 農場管理 体系의 利益增大를 가능케 함으로써… 한두 마리의 羊밖 에 사육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面積에서 여섯 마리 내지 여덟 마리, 심지어는 열 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게 되었다.」 폴란드는 뉴질랜드처럼 羊飼育에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人口密度가 낮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飼料作物에 대한 压迫이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감소되기는 할 것이다.

飼料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作物構造에 있어서 穀物の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한편 作物構造上 과잉생산이 되거나 남아도는 作物은 없게된다. 飼料穀은 계속 輸入에 의존해야 할 展望이기 때문에 飼料用 옥수수를 조속히 재배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폴란드는 飼料不足으로 인해서 1971~75년 사이에 外貨로 8백만 즐로티에 해당하는 費用을 들여 약 21.1백만 t의 穀物과 飼料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다. 畜産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外國으로부터의 穀物導入이 필연적이었다. 1975년에 飼料導入에 지출된 外貨는 石炭輸出로 벌어들인 總額의 75%를 차지했다. 폴란드는 엄청난 工產品輸入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나라이며 또한 西歐金融界에서 이 나라의 外債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飼料穀 輸入의 負擔을 계속해서 안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蘇聯과는 달리 飼料供給을 줄여 家畜數를 감소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府의 肉類調達量은 生産量보다 그 신장율이 높았으며 또한 消費者 肉類市場에서의 햄과 燻製肉類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總肉類生産量 3,054천 t (生体重量 기준)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1,178.4천 t)이 돼지고기이며 쇠고기는 696천 t, 仔牛肉이 58천 t, 家禽肉이 230천 t 이었다. 肉類生産의 增加率은 1975년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았다. 1970년대 후반의 肉類供給은 70년대 초반 때와 같은 增加率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1976~80년의 經濟計劃 동안의 肉類消費 增加計劃은 1인당 10kg이며 이것만이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家畜과 飼料 生産者들이 生産을 증가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表 1. 肉類生産量, 1970~75

年度	生産量 (生体重量)	政府의 肉類調達量	消費者 市場供給量	단위 천 t	
				市場供給量中 肉加工量	家禽肉除外量
1970	2,207	1,437	1,004	406	369
1971	2,215	1,534	1,146	464	435
1972	2,485	1,857	1,324	522	512
1973	2,739	2,104	1,422	567	550
1974	3,067	2,429	1,557	643	581
1975	3,054	2,425	1,719	749	620

註·家禽類 포함.

資料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Mały rocznik statystyczny, 1976, pp. 163, 164, 200.

1971~75년의 經濟計劃 기간에 肉類生産은 38%가 증가했으며 市場放出은 非都市消費者를 희생시킴으로써 그보다 더 증가했다. 그런데 1974년에는 惡天候와 용이한 成長에 대한 제약이 수반됨으로써 畜産增加는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75년에 들어 더욱 심해지기까지 했다. 肉類生産 增加率이 이렇게 둔화되었을때 國民의 所得은 극적인 증가를 보였었다. 畜産生産의 증가는 적절한 畜舎 및 機械化와 같은 要因 그리고 飼料의 確保可能量에 따라 좌우되며 1975년까지는 이러한 모든 成長要因이 제대로 이용되어 畜産增加가 실현되었다.

폴란드가 肉類에 있어서 國內市場조차 충족시킬 수 없으면서도 總肉類生産量의 10%를 수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폴란드가 수출하는 肉類는 일반적으로 아주 高價의 上品이며 여기에서 획득하는 外貨로 많은 家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飼料를 구입한다. 肉類輸出을 중단하게 되면 10억 즐로티를 잃게 되며, 이렇게 되면 飼料輸入量이 삭감되어 畜産을 위축시킴으로써 肉類生産이 줄어들게 된다. 肉類輸出의 중단 결과 飼料輸入量이 줄게되면 國內 肉類供給量은 연간 약 200천 t 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폴란드는 1976년에 22~25백만 t의 美穀物을 구입했다. 그들은 그 대가로 美國에 대해 200백만 달러의 外상거래를 요청했었으며 더 많은 치즈의 對美수출을 바라고 있다. 美國의 對폴란드 輸出額은 1972년에 82백만 달러에서 1975년에는 368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동안의 輸出增加額은 250백만 달러에 이른 것이다. 美國의 對폴란드 輸出品으로는

옥수수, 小麦, 大豆, 豆油, 果子類 등이 있다. 美國의 苺폴란드 小麦輸出額은 1972년의 8.5백만 달러에서 1975년에는 65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옥수수의 경우는 1974년에 13.4백만 달러에서 1975년에 142.5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폴란드의 消費者 食品需要가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는 그럴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表 2 참조). 1971~75년 사이의 經濟計劃期間에 폴란드의 人口는 32.7백만 명에서 34.2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증가된 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 인구구조 역시 변해 1975년에는 그전에 비해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50만 명, 성인(15~59세)이 6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어린이들의 食品消費量은 일반적으로 어른보

表 2. 폴란드와 西獨의 1인당 食品消費量

食品名	폴 란 드			西 獨		
	1950	1960	1970	1950	1960	1970
薯 類	270	223	197	186	132	100
穀 類	166	145	132	99	80	65
계란(개)	116	143	184	136	229	276
精 肉	36.5	42.5	52.6	39.0	59.7	78.5

資料 :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Rocznik Statystyczny, 1971, p. 570.

다는 적다. 그리고 또한 農村 人口가 都市로 이주한 것도 하나의 要因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통상적으로 食品의 自給生産에서 購入消費로의 變化를 의미한다. 이러한 移住民들은 그동안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食品小売市場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食品小売消費者의 隊列에 참가하게 될 때이다.

폴란드의 食生活은 穀物과 저질의 食品으로부터 보다 良質의 食品으로 변하고 있지만 良質의 食品으로 代替될 수 있는 것은 肉類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 魚類는 供給이 미약하고, 질이 좋고 價格이 합당한 치즈는 거의 없으며, 각종 蔬菜는 불충분하다. 女性の 就業比率이 늘어나고 食品加工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肉類는 또한 간편한 食品이 되고 있다. 각종 冷凍食品이나 통조림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肉類없이 요리를 장만하기란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폴란드의 食品價格은 비싸다. 그리고 폴란드의 非農家 食品費支出은 中央統計局의 집계에 의하면 1970년에 總支出의 43%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食品의 供給不足은 經濟成長과 實質賃金을 하락시키게 된다. 國營交易部門은 食品의 供給이 불충분할 때 需要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로 價格上 昇을 감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自由市場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狀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共產國家들은 消費者들로 하여금 그들의 所得을 非農產品 구입에 더 많이 쓰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 非農產品에 대한 支出을 조장함으로써 農產品에 대한 需要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戰略은 드러맞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유일한 解決策은 農業生産의 增加 이외에는 없다. 現行 計劃(1976~80) 기간의 食品의 市場供給增加目標은 35~37%이다. 이렇게 되려면 農業增産이 15~16%가 이뤄져야 한다.

폴란드의 生活水準이 향상된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關係적으로 봐서 所得이 높은 나라일수록 畜産物의 1인당 消費가 높고 穀類 및 薯類의 消費가 낮다. 이러한 유형의 情報은 營養問題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心理的인 要因으로 작용을 하여 肉類消費를 많이 할수록 生活水準이 높은 것으로 결부를 시키게 된다.

폴란드의 1인당 肉類消費는 1961~65년의 經濟計劃 기간에는 6.7kg이 증가했으며 1966~70년의 計劃 기간에는 3.8kg이 증가했다. 1965년의 폴란드 1인당 肉類消費는 108파운드(약 50kg)였다. 그러나 1966년과 1967년의 증가에 뒤이어 폴란드의 肉類消費는 약 115파운드로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1970년까지의 肉類消費 計劃은 117~121파운드로 약간 증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폴란드의 1인당 消費量은 肉類輸入으로 다소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에는 감소되었으며 1971년에도 낮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肉類의 市場供給量은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17.7%가 증가했다.

統計에 의하면 1975년의 폴란드 1인당 肉類消費는 70kg이었다. 이 70kg의 肉類 및 肉加工品 가운데 가게 販賣 46kg, 음식점 消費 4.6kg, 각종 食品添加物 利用 1.6kg, 共同消費 3.6kg, 農村地域 消費 14kg의 분포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基準量인 70kg 이상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75년의 經濟計劃 동안에 1인당 肉類

消費은 21.2%인 17.2kg이 증가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需要의 增加速度는 더욱 빨랐다. 人口增加와 所得向上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1974년에 이뤄진 研究結果에 의하면 農家の 肉類消費는 都市勞動者 家族보다 1.6kg이 낮았으며 農業勞動者 家族의 肉類消費는 그보다 8.1kg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肉類消費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뤄지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農村에서의 肉類消費가 1970년에 1인당 17kg에서 1975년에 14kg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都市에 대한 肉類供給이 增加하여 都市와 農村 사이의 그러한 營養不均衡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한 趨勢라고 볼 수는 없다. 農民들은 都市에 살고 있는 그들의 同志들이 肉類를 1년에 70kg이나 먹고 있는데 반해 고작 14kg으로 진정으로 자족해 할 것인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폴란드에서의 肉類消費도 所得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消費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1974년의 家口당 肉類消費는 12천 즐로티 이하의 所得의 경우가 36.5kg, 12~15천 즐로티가 46.9kg, 15~18천 즐로티가 51.7kg, 그리고 36천 즐로티 이상의 경우가 75.8kg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數値는 肉類의 需要가 賃金上昇에 따라서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즉 發展이 진전됨에 따라 肉類消費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웨덴이나 日本 같은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스웨덴이나 일본에서는 魚類나 기타 蛋白食品의 消費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1976~80년의 計劃 기간에 肉類消費는 불과 10kg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肉類需要의 成長率을 낮출 必要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肉類에 대한 所得彈力性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해진 조치는 肉類價格을 평균 35% 인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引上措置는 발표되었다가 취소되었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결과 나타난 문제는 農業生産性을 높이는 것만이 장기적인 解決策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폴란드 農業生産者의 類型

폴란드에는 北東部の 落後地域에 있는 실질적인 複合形態의 村落으로부

터 바르샤바 近郊에 있는 資本主義的인 私營 蔬菜生産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畜力조차 없는 10에이커 이하의 私營農場으로부터 콤바인을 보유하고 있는 10만 에이커 이상의 國營農場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農場形態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폴란드의 農場은 다소 資本主義的인 소수의 農場을 포함하는 私營農場과 集團農場(生産協同體) 및 國營農場을 포함하는 社會化農場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默認된 私營地가 산재해 있으며, 社會化 傾向의 政府가 채택하고 있는 각종 形態의 協同이 農民 사이에 이뤄지고 있으며, 社會化農場의 농업노동자들이 포기하려 하지 않는 自由營農의 형태도 다소 있다. 社會化農場 가운데는 장비와 시설을 共同保有하고 있는 農民의 村落協同體인 農業서클이 協同적으로 經營하는 農場도 있다. 自由營農의 형태 가운데는 집단농장 노동자들이 私的으로 耕作하고 있는 私耕地와 法으로 규정된 飼料供給 割當量이 없으면서도 돼지고기를 國家에 수매하는 國營農場 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不法自由營農의 형태가 있다.

〈表3〉과 〈表4〉는 1년간의 現況과 變化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긴 해도 그 現況과 變化率은 오늘날의 폴란드가 당면하고 있는 土地 所有權과 土地利用條件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社會化 部門은 증가하고 있으며 私營農部門은 줄어들고 있다. 總農地面積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草地와 牧場이 급속한 比率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71~75년의 計劃 기간에 國營農場과 集團農場 그리고 農業서클의 占有農地面積은 16%에서 20%로 증가했다.

私營農의 經濟體系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私營農의 平均面積은 약 5 ha이며 그 가운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폴란드에는 특히 傳統的인 南部地域에는 私營農의 平均面積이 5 ha 이하인 곳이 즐비하다. 私營農의 體系 하에서는 法的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農地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政府가 協同의 名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유로도 私營農의 통합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972년 현재 民間部門의 私營農民이 소유하여 耕作한 耕作面積은 폴란드 전체의 83%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1974년에는 80%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전체 耕作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다. 한편 政府當局은 集團化의 余地를 마련하고

表 3. 폴란드의 土地利用과 所有構造, 1973

단위 ha, 土地利用%

農地形態	總農地面積	耕作面積	牧場·草地	果樹園	林野	기타	
總計	19,325,900	14,799,800	4,219,500	1.0%	27.3%	10.7%	
私營農場	17,748,800	12,092,100	3,181,600	1.6%	8.6%	3.8%	
社會化農場	3,773,500	2,707,700	1,037,900	0.2%	52.2%	19.9%	
國營農場	3,160,800	2,333,100	804,500	0.6%	4.0%	13.4%	
農業서클農場	131,500	84,800	500	21,900	0.3%	2.7%	4.8%
集團農場	277,600	216,800	35,000	23,100	0.9%	3.3%	5.7%
私耕地	11,300	10,900	300	100	1.6%	0.3%	5.9%

資料: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Użytkowanie gruntów i powierzchnia zasiewów oraz zwierzęta gospodarskie w czerwcu 1973 R., Statystyka Polski (1973), No. 17, pp. 2-5

있으면서도 私營農의 최저 所有面積을 20ha로 책정하여 農機械와 기타 現代方法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民間部門의 건전한 營農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고물가 政權이 취한 態度變化이다.

農業近代化에 대한 農民들의 態度 또한 변하고 있다. 최근 民間部門의 農民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數가 상당히 증가하여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數는 이제 20만 대에 이르렀다. 과거에도 農民들이 近代化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政府當局이 營農方法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이들 私營農들과 함께 農業近代化問題에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農民들은 生産能力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資本을 들이며 政府當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農産業이 私營農 중심으로 이뤄지고, 村落의 住宅供給이 증가되고 있으며, 低利의 편리한 融資가 가능하게 되었다. 政府當局의 이러한 態度變化의 영향으로 私營農의 商業化와 專門化가 증가되고 있다.

私營農의 專門化를 증가시키는 것은 生産強化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1976년에 수행된 한 研究結果에 의하면 營農의 萎縮過程을 겪은 私營農의 比率이 그 어느때보다도 겹차로 커져 「廢農」이라는 새로운 用語까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農地의 所有者는 年老한데다 營農後繼者가 없는 農民으로서 그들의 農地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政府가 農業의 완전한 集團化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폴란드 政府는 만약 심각한 經濟的인 不利益과 政治的인 不利益을 치르지 않고는 그러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가능한 한 私營農의 個人主義를 말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백만의 私營農은 契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社會化된 計劃經濟와 關係를 맺어 왔다. 國家는 流通되고 있는 전체 農產物의 80% 이상을 계약에 의해 수매하여 왔다. 社會化되지 않은 市場部門은 그 역할이 작아 보조 기능에 그친다. 社會化部門은 流通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農作業에 있어서까지도 아주 중요한 役割을 담당한다. 農民의 營農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하나의 生産增加 요인은 서비스이다. 특히 勞動의 機械化와 運送部門의 서비스는 農場의 生産增加를 가능케 하는데, 그러한 서비스가 없을 경우 農場은 비경제적인 運營을 하게 된다.

私營農民에 대한 이러한 社會化 압력으로 말미암아 소위 「農民組合」이 축전 되었는데 이 農民組合의 役割은 政府當面이 전혀 담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맡는 것으로서 이 組合을 시도하게 된 것은 農民 계층이 그들의

表 4. 土地所有構造變化, 1973(1972년基準)

農場形態	단위 %					
	總農地面積	耕作面積	牧場	草地	果樹園	林野
總計	99.8	99.7	100.4	99.1	101.0	100.3
私營農場	99.5	99.5	100.2	98.9	101.0	98.7
社會化農場	100.8	100.8	101.1	99.8	101.6	100.7
國營農場	101.2	101.6	100.2	100.0	100.6	108.6
農業서클農場	106.7	107.4	108.3	102.8	86.5	117.3
集團農場	104.0	103.6	107.1	104.3	93.8	108.3
私耕地	102.4	102.5	126.7	78.1	85.5	72.9

資料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Użytkowanie gruntów i powierzchnia zasiewów oraz zwierzęta gospodarskie w czerwcu 1973 R., Statystyka Polski(1973), No. 17 pp.2-5.

개인적인 合意와 農業 同僚들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協同體에 대한 國家의 일부 壓力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農民組合은 機械의 共同利用을 위해서 더 많은 트랙터를 사들였다. 이러한 農民組合은 장비를 더 잘 이용하여 경작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지를 받고 있다. 農民組合 가운데는 特殊作物의 生産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도 있다. 농민들은 이러한 組織을 통해서 勞動과 資本을 적게 들고도 收益을 증가시

킬 수 있다. 폴란드에는 1976년 현재 약 1만 개의 農民生産組合과 2만 2천 개 이상의 機械의 共同利用을 목적으로 한 農民組合이 있었다. 이러한 農民組合은 協同事業이라고는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급하는 다른 많은 協同事業과는 달리 私營의인 性格을 띠는 최상의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당국은 集團活動 및 生産에 관련된 목적을 위해서 이들 組合을 特惠金融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이러한 組織形態에 대한 金融條件은 私營農民의 農場에 비해 훨씬 우선권이 있다.

폴란드 農業의 社會化(國家管理)部門과 私營農民의 經濟體制 및 心理狀態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72년 현재 폴란드의 社會化 部門에 속해 있는 각종 형태의 農場數는 5~6천이었으며 여기에 고용된 사람은 60만 명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私營農場數는 3백만이며 여기에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은 6백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社會化 部門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폴란드 農業의 장래는 이 社會化 部門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로블로우바에서는 전체 農地의 70%가 私營農地이지만 地方 官吏들은 앞으로 5~6년 안에 55% 이상이 國家所有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比率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趨勢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政府는 私營農의 農地를 철저히 國營農地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私營農 村落을 내부로부터 점차 社會化하고 있다.

集團農場은 社會化 農場 部門 안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그밖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集團農場은 1948년에 소련으로부터 폴란드에 도입되어 1956년까지 農民의 약 10%가 이에 강제편입되었으나 바로 그해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때문에 대부분 해체되었었다. 1970년 현재 폴란드의 集團農場數는 1,096개이며 여기에 속해 있는 農地는 274천ha였다. 集團農場의 변천 상황에 대해서는 <表3>과 <表4>를 참고하기 바란다.

폴란드 農業에 있어서 “社會主義的인”要素를 띠고 있는 가장 중요한 部門은 國營農場과 農業서클로 이들은 수레의 兩 바퀴를 이루고 있다. 農業서클은 세계 제1차 대전 전에 占領勢力에 의한 징발을 피하기 위한 농민들의 協同運動의 한 형태로서, 그리고 自立의 한 수단으로서 개발되었던 것이다. 이 農業서클은 폴란드 政府가 1956~57년에 集團化를 해체시

키고 난 뒤를 이어 재등장되었다. 현재의 農業서클은 農機具, 農事指導, 그리고 私營農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流通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農民들의 자발적인 協同체로 되어 있다. 農業서클은 1970년까지 2백만 이상의 會員을 확보했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農業서클에 가입한 會員들은 地主와 私營農場의 農場員들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농민이 農業서클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利益을 저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農業서클聯合中央會 會長이며 農務省 副相인 J. 크로티우크는 어느 인터뷰에서 農業서클의 현재와 장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1976~77년에 있어서 農業서클의 주요 任務는 農業에 대한 서비스 規定을 계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要求는 지대하지만 그 滿足度는 훨씬 떨어지고 있다. 農業서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國家의 支援 때문에 農民들 사이에서 私的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보다 費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각 村落마다 農業서클을 만들려고 試圖를 했었지만 農機具와 서비스를 적절하게 배치하기에는 너무도 허약하고 또 그 數도 너무 많아 불가능했었다. 이러한 農業서클은 그 뒤에 農業서클協會로 결속되었으며 한 協會가 1개 郡 정도를 관장하고 있다. 農機具의 관리가 農業서클에서 農業서클協會로 이관되면서 관심은 協會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農業서클은 바로 서클 자체의 文化的, 社會的 各種 活動을 통한 여러 가지 社會發言活動 및 새로운 營農方法의 보급을 비롯한 중요한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農業서클은 共產主義的인 트로이 木馬가 아니며 私營農의 生産性を 높여주는 하나의 方式일 뿐이다. 農業서클協會는 농민들로서는 불가능한 機械勞動力을 제공함으로써 作物 構造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노동력이 부족한 農場이라 할지라도 農業서클이 파종에서부터 수확 및 수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해줄 수 있다면 작물의 植付面積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農業서클의 존재로 인해서 폴란드 農村地域의 생활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農業서클의 수는 1957년에 11,600 개이던 것이 1970년에는 35,200개로 늘어났으며 會員數는 같은 期間에 39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증가했다. 1971년 현재 農業서클이 활약하고 있는 村落은 전체 村落의 88%에 이르

렸다.

政府가 비교적 낮은 價格으로 私營農으로부터의 強制收買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農民들에게 지불된 價格과 政府가 “平均價”라고 생각했던 價格과의 차액은 農業開發基金(ADF)에서 보상되고 있었다.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農民들의 募金運動에 의해서 대부분의 財源이 마련되고 있던 農業開發基金은 政府當局에 의해 社會化 部門에 쓰여지게 됨으로써 50년대와 60년대의 폴란드 國營農場과 集團農場은 천문학적인 赤字를 내면서도 그 運營이 다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強制收買는 폐지되었지만 政府는 지금도 農業開發基金을 계속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私營農 部門을 지원하는 資金의 비율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가되고 있다. 農業서클이 트랙터와 農機具를 구입하는 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技術訓練을 위한 費用補助로 이용되고 있는 資金은 農業開發基金의 資金이다.

또한 農業서클은 차차로 協同貿易運動에도 관련을 맺게 되었다. 農業서클은 지난 수년 동안 農產品에 대한 貿易契約을 조정하고 農業部門에 약간의 生産手段을 제공하는 일에 점차로 참여해 왔다.

이러한 모든 計劃과 서비스는 결국 폴란드 村落에서 지극히 필요했던 協同運動을 가장하여 사실상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農業서클의 集團營農事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政府는 集團農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農業서클을 이용할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있었다. 1971년 현재 農業서클 農場에서 集團의으로 경락된 農地面積은 약 1만 6천ha였다. 1976년에는 그 耕地面積이 34만ha로 늘어났으며 조직된 農業서클 農場數는 1천 5백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農地의 대부분은 年金을 받는 代價로 國家에 넘겨준 私營農의 農地였다. 이러한 農地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筆地를 모자이크 한 것과 같은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現代의인 營農方法으로 경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農務相인 카지미에르즈 바르치코프스키는 農業서클農場의 農產物에 대한 生産性이 낮은 理由 가운데 하나로 이 점을 강조했다. 農業서클農場의 穀類 收穫量은 ha당 2000kg이지만 이곳의 農地는 극도로 寸斷되어 있는 데다가 地力이 쇠진되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폴란드는 農地를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農業서클이 보유하고 있는 農地의 반절 이상은 下位等級인 5~6등급에 속하는 것이다.

1976년 현재 農業서클協會가 보유하고 있던 트랙터는 13만 대였는데 이 가운데 3만 대는 協同的인 利用을 위해 私營農들에게 넘겨졌다. 私營農의 農機械 소유는 개인 및 協同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私營農民들은 계속해서 農業서클의 장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農業서클은 村落에 대한 農機械와 關聯된 서비스로 인해서 農業에 대한 서비스 分野, 말하자면 化學製品의 신청이나 추수, 혹은 엔실레이지의 제조에 깊이 關여해 왔다. 農業서클은 村落의 特化를 발전시킴으로써 점차로 專門화된 서비스에 대한 要請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農業서클에 參與하고 있는 農民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여러 가지 制約條件에서 점차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결국 農業서클은 또한 촌락의 親善共濟會가 되고 있다. 폴란드의 私營農 村落은 再建의 必要性이 絶對히 요청되고 있으며 政府當局은 과거에 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들에게 建築資材를 제공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農業서클은 문자 그대로 生産性 提高와 社會化 農業의 促進에 있어서 모두 필요한 要素가 되고 있다. 그러나 農業서클 自体는 社會主義的 農業 生産性에 대한 훌륭한 事例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한 優秀性은 國家의 所有로 되어 있는 國營農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IV. 國 營 農 場

폴란드의 國營農場은 共產主義를 조롱한다거나 그 理念을 풍자할 때, 또 國家資源의 浪費에 대해 언급할 때 이용되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國營農場이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利潤을 남길 수 있는 制度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専門적인 研究와 現地實情에 關한 많은 情報이 있어야 할 것이나, 農村近代化의 中心體로서 生産性을 크게 제고시키고 그 役割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폴란드에는 아직도 어두웠던 過去의 殘滓들이 남아 있다. 國營農場은 다른 部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며 아직까지 安定된 形態의 政治·社會·文化的 生活를 지속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國營農場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그들의 評判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우수한 農民들이나 勞動者들은 國營農場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우수한 經營者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國營農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官僚, 無能力者, 게으름뱅이, 술주정꾼으로 묘사되어 왔다. 사람들이 國營農場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政府는 이러한 國營農場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破産 직전에서 經濟的 展望이 보이는 위치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는 政府의 신뢰도를 말하는 것이 된다.

경험있는 國營農場 經營者들은 農業生産性を 높인 要因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안정적인 勞動力과의 결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良質의 勞動力이 먼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이 勞動力이 정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그 制度에 대한 評判이 懷疑的일 때는 좋은 生活條件이 요구된다. 좋은 生活的 要素 가운데 하나가 적절한 住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폴란드에서는 이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적절한 住宅提供은 아마 그 어떤 要因 보다도 國營農場의 勞動力을 확보하여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誘因이 된다. 農村生活의 質은 이러한 住宅 외에도 公共炊事場, 保健所, 託兒所, 클럽, 스포츠施設과 같은 시설의 利用可能性에도 영향을 받는다.

國營農場의 生活條件, 經濟的 業績 및 評判은 크게 나아졌다. 많은 社會學的 研究에 의하면 오늘날 國營農場 노동자들은 그들의 作業과 有用性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階級으로서의 職業에 대해서는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의 自己評價가 肯定的인 方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國營農場 經營者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는 과거 2차에 걸친 5개년 計劃 때보다 經營方法에 관해서 무언가 더 알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5,200명의 國營農場 經營者 가운데 高等教育을 받은 사람은 겨우 960명에 지나지 않는다.

1971년의 經濟改革으로 國營農場은 매우 중요한 改善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貸金이 農場의 資本生産性과 收穫高에 연계되었다. 이것은 貸金은 물론 生産性を 증진시키는 바람직한 效果를 가져왔다. 年貸金 總額은 1969~70년에 평균 26,500클로티였던 것이 1974~75년에는 41,200클로티로 올랐다. 同期間의 最終生産物 價值로 환산하면 生産性的 成長率은 69%에 달했다. 이렇게 生産性이 새로 늘어나게 되자 이 소식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國營農場은 이러한 生産性 때문에 당연히 칭찬을 받

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進歩는 非經濟的인 정도로 엄청나게 財政的인 뒷받침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그 구체적인 額數는 비밀에 붙여졌다). 아 물론 國營農場은 막대한 投資를 받음으로써 필연적으로 近代的인 社會主義 農業模型에 보다 더 접근하게 되었다. 1971~75년의 計劃期間 동안에 國營農場의 課業은 生産量을 43% 增加達成하는 것이었다. 國營農場은 1974년까지 48%를 달성하였는데, 당시 農耕地의 약 16%에서 생산된* 최종적인 農業生産은 總農業生産의 14%를 차지했다. 이처럼 國營農場의 生産性이 증가한 것은 그 裝備 및 建物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 國營農場에 있어서 1 ha당 固定費用의 資本投資는 1969~70년에 45,000줄로티이던 것이 1974~75년에는 60,000줄로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生産性 數值 뒤에는 몇개의 더욱 눈부신 業績들이 숨어 있다. 1973년에 國營農場의 段取는 ha당 30콰르트를 넘어섰고, 1974년에는 33.7콰르트에 이르렀다. 國營農場에서 생산하는 穀物의 95% 이상은 多收穫品種이다. 飼料作物技術 역시 개선되고 있다. 옥수수 같은 영양가 높은 飼料作物이 파종되고 있다. 飼料乾燥 또한 개선되고 있다. 工場 飼料도 생산되고 있다. 國營농장의 混合飼料 生産은 40만 t에서 240만 t으로 증가하였다.

國營農場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家畜生産性의 增加이다. 1970년부터 75년 사이에 소의 頭數는 51% 증가하였고, 젖소는 약 11%, 돼지는 186%, 양은 54%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肉類(生體重基準)의 生産量은 105%, 우유는 39%가 각각 증가하였다. 最終的인 總農業生産 가운데 國營農場이 차지하는 比率은 1975년에 穀類는 30% 이상, 쇠고기(生體重基準)는 30% 이상, 油菜씨는 40% 이상이었다.

國營農場은 生産性뿐만 아니라 植付面積도 증가하고 있다. 1967년에 수정된 法에 따라서 農民으로부터 취한 土地는 國營農場에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國營農場이 폴란드農業의 成長部門임을 뜻하는 것이다. 國營農場은 그 植付面積이 증가될 것이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점차적으로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耕地統合의 媒介體가 될 것이다. 農耕地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私營農民의 所有로 있는 한 國營農場이나 혹은 大農場으로의 耕地統合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 브로클라브 地方에 있는 한 國營農場結

合体(몇 개의 国営農場이 결합하여 하나의 經濟單位로서 활동함)의 管理人是 “總面積이 115,000에이커인 8 개의 農場을 관장하고 있는데 国営農場結合体の 土地 사이에 별처럼 흩어져 있는 소규모의 個人所有土地를 사들여 結合体の 土地를 한군데로 모으려고 하고 있으나 所有主가 土地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970년에 国営農場이 폴란드 全農耕地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970년에 14.3%였으나 1975년에는 16%인 3,070,000ha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國家土地基金으로 土地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國家土地基金은 단지 국가로 移轉되는 土地에 대한 所有機能을 할 뿐이다. 다시말하면 國家에 양도된 私營農의 土地는 國家土地基金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 政策에 따라서 그 代價를 지불받게 된다. 国営農場은 폴란드 全域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西部와 北部地域은 国営農場이 耕地面積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南部와 中部地域은 통상적으로 그 比率이 적다. 이러한 차이는 1946년의 改革條件에 따라 생긴 것으로서, 中部와 南部엔 이미 耕地의 대부분이 私營農에 의해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国営農場 部門은 과거에는 自体事業만을 하는 것이 通例였지만, 이제는 점차로 余他 農業部門에까지 그 役割을 증가시키고 있다. 오늘날 国営農場은 모든 農業을 위한 중요한 近代化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課業은 전국에 保證種子와 育種家畜을 공급하는 것이다. 国営農場은 그들이 갖고 있는 耕作可能土地의 20%를 作物選擇과 種子生産에 이용하고 있다. 国営農場에서 공급하고 있는 種子是 穀物과 油脂作物이 약 95% 정도이며, 감자가 40%, 園芸作物과 苗木이 각각 30%이다. 또한 種牛는 90% 이상, 種豚은 70%, 種牝豚은 60%를, 그리고 기타 繁殖用 家畜에 대해서는 각각 30~60%를 공급하고 있다. 農業에 있어서 多收穫 作物과 家畜을 도입하게 되면 段取增加가 가속되고 家畜의 遺傳學的 質이 개선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国営農場은 孤立狀態에서 벗어나 個別農民, 農業團體, 그리고 集團農場과 협조하는 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國營農場과 私營農民 사이의 효과적인 協助方法의 하나는 私營農民的 農用建物を 国営農場의 畜舎로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私營農民은 國營農場의 機械, 專門家의 指導 및 社会的 혹은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理念的으로 말하자면 国营農場보다는 集團農場이 共產主義 특유의 農企業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폴란드의 集團農場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經濟的 側面에서 본다면, 각종 農業서클과 그에 관련된 農業協同組合이 한층 展望이 좋아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것들은 全部를 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결국 폴란드 經濟는 순수한 理念에도, 經濟的 受益性에도 얽매이지 않는 政府에 의해 운용된다. 그것은 아마 農企業家나 혹은 平等 이라는 유토피아적 꿈에 가깝기보다는 악명 높은 封建的 地主型에 더 가깝다 할 것이다. 사실 蘇聯이나 폴란드 政府가 무엇보다도 다루기 쉬운 農場形態로 国营農場을 꼽는다 해서 놀랄 것은 없다. 私營當農과 진정한 集團主義는 國民의 意思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는 經營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多元的이며 곤란한 것이다. 그렇다고 国营農場이 항상 非經濟的이고 非民主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現實은 몇 마디의 單語가 뜻하는 것보다는 훨씬 伸縮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폴란드의 国营農場은 國家意志를 계속 실천할 것이고, 國家는 國營농장이 점차 農業의 支柱役割을 하도록 주선할 것이다.

앞으로 国营農場의 주요한 任務는 總生産 및 그 市場供給量이 高速成長率을 유지하고, 私營農으로부터 보다 많은 耕地를 흡수하며, 폴란드 農業의 전반적인 技術的, 組織的 發展에 影響力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國營농장은 段收를 穀物은 ha당 34~35콰르트, 사탕무우는 350콰르트, 油脂作物은 24콰르트로 올리며, 家畜密度는 100ha당 소 89두, 돼지 84두로 올린다는 野心的인 目標을 세우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量의 飼料 供給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 家畜飼育條件을 개선시키며 選別的인 育種計劃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폴란드의 官界와 매스컴은 모든 형태의 農業協同을 크게 칭송하고 있지만 國家가 생각하고 있는 폴란드 農業의 担当者는 国营農場임이 분명하다. 폴란드의 각종 文件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內容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国营農場에 적절한 社會農業의 生活構造를 창조하는 것은 장기적 目標이며 黨은 이에 알맞는 注意를 경주해야 한다. 그 가장 좋은 方途는 投資를 증대시킴으로써 国营農場을 높은 農業文化, 近代的 組織과 같은 것의 中心地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이미 새로운 農業, 再建設된

農業의 살아있는 例로서, 가장 훌륭한 集團農場 및 國營農場을 많이 갖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일꾼들에게 높은 賃金과 알맞은 社會·經濟的 與件을 제공할 수 있는 農場들이다.” “國營農場의 農場作業과 生活潛在力에 있어서의 발전은 마을, 특히 젊은이들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V. 앞으로의 計劃과 展望

폴란드는 1976~80년의 5개년 計劃으로 農業生産을 15~16% 증가시키므로써 食糧供給의 增加率을 35~37%로 전망하고 있다. “폴란드聯合勞動者(共産)黨의 農業政策 및 食糧經濟研究그룹의 研究陣은, 農業은 물론 이와 관련된 다른 經濟分野에 있어서도 새로운 運用方式을 채택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 目標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合理的인 土地利用도 주요한 要求事項이 될 것이다. 國營農場은 1980년까지 전반적인 生産增加 目標量을 약 3분의 1로 잡고 있다.” 이러한 目標은 다소 무모한 것이지만, 그 計劃에 나타난 일부 數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同計劃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畜産과 飼料穀物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增加目標은 畜産이 16~18%, 穀類의 植付面積이 850만 ha이다. 지난 몇 년 동안에 飼料供給이 증가한 것은 輸入 이외에도 作付體系를 多取穫 作物로 전환시킨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폴란드는 너무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穀實用 옥수수의 재배는 불가능 하며 따라서 段取가 낮더라도 봄밀, 봄보리, 봄귀리의 파종을 증가시키므로써 보충해야 할 것이다.” 이 資料는 1974년 겨울밀의 取穫量이 부족했던 것에 근거를 둔 것이지만, 穀實用 옥수수와 폴란드에 관한 假定은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사실 폴란드 全域에 맹목적으로 옥수수를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國營農場은 적당한 條件 아래서는 穀實用 옥수수의 生産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폴란드는 1980년까지는 2만 5천내지 3만ha에 穀實用옥수수를 재배하여 이것으로 다른 飼料穀을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飼料需給에서 根菜類의 役割은 供給量의 약 10% 정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나, 그 種類는 변할 것이다. 감자는 多取穫品種으로 대체될 것이다. 포즈난地方의 감자植付面積은 금년의 66,500ha에서 1980년에는 53,500ha로 줄 것이지만, 總生産量은 금년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飼料用 사탕무의 植付面積은 3 배로 증가하여 8,500ha에 달할 것이다. 포즈난地方은 폴란드에서도 農業이 가장 발달된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여기서 일어난 革新은 다른 지역의 變化를 예고하는 것이 된다. “포즈난地方에서 옥수수는 가장 유력한 作物이다. 그 식부면적은 1976년 35,400ha에서 1980년엔 50,000ha로 늘 것이다.” 물론 이의 대부분은 穀實用 옥수수가 아니고 엔실레지용 靑刈 옥수수이다. 엔실레지용 靑刈옥수수는 현재 포즈난地方에서 전체의 12%를 생산하고 있는데 私營農이 주로 재배하고 있다. 農業서클協會에 適當한 裝備를 공급하면 私營農民에 의한 사일레지용 靑刈옥수수 栽培의 擴張은 가능할 것이다.

政府가 飼料輸入의 費用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폴란드는 앞으로 10년 동안 飼料를 輸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美農務省은 폴란드의 1980년 穀物生産量은 22,626천 t이며, 消費量은 24,918천 t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2,292천 t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그러한 數値의 正確性이나 폴란드에서 과연 그만한 物量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國民所得을 工業部門에서 農業部門으로 전환시키는 대가를 쳐버려도, 農業生産性과 供給의 提高를 촉진하는 政策에 대해 전반적인 言及을 하는 하나의 指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5개년 計劃의 成敗와 많은 關係를 갖고 있는 폴란드 農業問題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아마도 가까운 狀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變化는 私有農地의 社會化로의 轉換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매우 큰 重要性을 갖는 一방적인 推移이다. 5개년 計劃을 통해서 私營農은 年金을 받는 代價로 農耕地를 國營農場에 넘기게 될 것이다. 1974년에 개정된 年金法에 따라 “이전에는 최소 5ha 이상을 政府에 讓渡했을 때 年金을 지불하던 것이 최소 2ha 이상으로 낮춰짐으로써 그 比率은 가속화 되었다. 얼마

나 많은 土地가 이렇게 양도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중 대부분은 國營農場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폴란드 政府가 國營農場을 農業再建의 支柱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까지 國營農場은 1971~75년의 5개년 計劃 때보다 2배 이상의 土地를 양도받을 것이고, 全農業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比重은 20%로 상승할 것이다.

폴란드의 消費者, 經濟 그리고 政府는 보다 많은 農業生産을 필요로 하고 있다. 農業生産을 위해 확장할 만한 土地가 거의 없기 때문에 產出量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既耕作地에서의 生産性を 제고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폴란드 農業의 段取는 결코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農業에 資本投入을 증가시키고, 生産者에게 增産意慾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보다 높은 生産性を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農業生産에 있어서 貸貸借의 可能性을 높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選拔은 20년전에 주목받았었다. 農業에 있어서 貸貸借의 可能性은 두 가지 方法으로 높일 수 있다. 즉 生産費에 비해 農産物價格을 높이거나 혹은 價格은 그대로 두고 生産費를 낮추는 방법이다. 두 方法의 數學的 效果는 비슷할지 모르나, 經濟的 效果는 아주 다를 수 있다. 私營農에서 生産費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저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대규모 農企業 즉 國營農場에서는 그럴 수 있는 可能性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들의 현재 投資에 대한 報酬은 私營農보다 못하지만 말이다. 좋고 나쁘고 간에 아직까지 대부분의 農業生産은 私營農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價格引上은 私營農으로 하여금 產出高를 올리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私營農으로부터 社會化 農場으로의 土地轉換과 관련된 問題의 하나는 土地統合 問題이다. 農地가 극단적으로 細分化되는 경우 農業의 장래는 可能性이 없다. 土地統合은, 現在에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解決策이며 社會·經濟的 必要性을 갖는 것이다. 폴란드의 시골 上空을 날아보면, 광대한 土地가 다양한 조각으로 누더기처럼 갈라져 있으며 간혹 길쭉한 조각마다 서로 다른 作物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폴란드의 私營農場은 대부분 그 面積이 소규모이며, 이는 土地相統이 모든 아들에게 골고루 이루어지는 伝統에 기인한 것이다. 政府는 한 아들에게만 土地를 相統하게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土地細分化를 방지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政策이 시행되어 農土가 더 이상 細分化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生産性面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정도로 細分化가 진척되어 있다. 土地細分化에는 세 가지의 파라미터가 있다. 첫째는 農家 所有의 土地가 너무 소규모라는 점, 다시 말하면 農土가 너무 많은 農民들에게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 土地가 소규모로 細分되어 있기 때문에 機械化를 더욱 制約하고, 土地를 이용하는데 시간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境界線(둑)에 소요되는 農地를 증가시킨다는 점, 끝으로 筆地當 面積이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스캉스러울 정도로 길쭉한 線 형태로까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폴란드 北東地方의 어느 農地는 1야드(91.44cm) 미만의 幅으로 약 2km나 되는 긴 형태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소유한 바둑판 같은 土地를 國家所有의 大規模 形態로 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非農業的 利用에 의한 農土의 損失은 都市—工業의 發展과 理念路線의 초월에 관련된 推移이다. 물론 이 推移에서 不定的인 效果는 예측에 의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 1972년 1월 1일부터 效力을 발생한 폴란드의 農地, 林野 및 開墾地 保存法은 “農土에 대한 保存은 非農用 目的을 위한 農地의 轉用制限과 肥沃度の 減少防止 그리고 非農業活動에 의해 農地로서의 性格을 잃었을 때 그 복구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같은 農土의 損失은 全世界적으로 나타나는 現象으로 農地의 轉用 뿐만 아니라 農業分野를 포함한 都市—工業의 汚染物質에 의한 破壞效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폴란드 農業에 대한 工業의 環境의 影響은 매우 심각하며,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報告가 있었다. 政府가 실시하기로 한 1972년의 法은 그 방향이 옳게 잡힌 것이다. 그리고 私營農場으로부터 國營農場으로의 土地 轉換은 이런 問題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國家는 私營農의 불평보다는 國營農場 經營者의 불평을 더 고려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마찰로부터 土地를 보호해야 하는 必要性이 <表5>에 잘 나타나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農業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폴란드의 農業이 특별히 效率的이기 때문이 아니라 工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즉 農業에의 취업이 유일한 生計의 수단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農業을 生計手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것처럼 農業의 細分化가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는 1950년대말까지 지속되어 왔으나 2차 大

表 5. 폴란드의 總農地와 耕作地의 變化推移

年 度	總 農 地		耕 作 地	
	面 積	總面積에 대한比率	面 積	總面積에 대한比率
1947	20,400	65.6	16,000	51.3
1965	19,600	63.0	15,200	48.8
1971	19,500	62.5	15,000	48.0
1972	19,400	62.0	14,843	47.5
1973	19,300	61.8	14,799	47.3

資料 : Główny Urząd Statystyczny, Użytkowanie gruntów i powierzchnia zasiewów oraz zwierzęta gospodarskie w czerwcu 1973 R., Statystyka Polski(1973) No. 17, P.2

戰 이후 社會主義 政權의 變化된 政策에 의해 급속한 工業化와 都市化가 進進되면서 農村의 過剩人口를 대폭 감소시켰다. 1960년대의 農村人口는 약 15,8백만이었으며 같은 기간 農村에 거주하는 非農業人口의 比率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는 農村人口의 43%에 이르렀다. 그러나 農業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勞動力을 고용하고 있는데, 1960년의 農業人口는 약 11백만 명 정도에서, 1970년에는 9.6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개의 폴란드 사람들은 工業보다 農業에 의해서 生計를 유지하고 있는데 폴란드의 전체 雇傭에서 農業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은 1970년에 34.3%로 두번째로 比重이 높은 工業의 26.8%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農業部門의 比重은 과거 1950년의 47.5%에서 1960년에는 38.2%로 감소하였다.

東유럽의 대부분 國家에서는 農業이 유일한 고용수단인 狀況으로부터 아직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農業이 都市와 工業部門의 職業에 勞動力을 급격히 제공하고 있는 보다 건강한 현재의 상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雇傭構造의 變化는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東유럽에서 發展에 역행하는 것 중의 하나는 農業勞動力의 老齡化 現象이다. 이와같은 農業勞動力의 老齡化는 일반적으로 非農業分野의 취업과 生活이 農業에서의 그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세계적인 傾向이지만 다만 共產圈 國家가 農民들에게 특히 참혹하게 대해왔을 뿐이다.

農業勞動力의 이와같은 變化로 인해서 農業生産의 非效率性은 過剩人口와 過小雇傭에 의한 것으로부터, 충분한 勞動力과 企業精神—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특히 開發心이 부족하다—의 결여에 의한 것으로 그 理由가 바뀌게 되었다. 農業을 포함한 폴란드 經濟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基本的인 原因은 流通問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勞動生産性과 生産過程에서의 勞動의 낭비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중반에 제기되었으며 아직도 農業低雇傭의 條件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勞動力의 不足이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중반의 農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었다. 전통적인 농업에 대한 이와 같은 關係는 <表 6>에 잘 나타나 있다.

東유럽 國家에서 農業으로부터 都市 및 工業으로의 大移動은 또한 農民 勞動者階層을 형성했다. 이는 農業人口가 時間制나 臨時雇傭, 혹은 正式

表 6. 小農에 있어서 勞動投入과 總生産量의 關係, 1950

耕地規模	勞動投入日數 ha/年當	總生産量 ha當(złoty)	總生産量 戶當	總生産量 勞動日當
4 ha이하	155	10,000	40,000이하	64.5 złoty
4 - 7 ha	95	9,000	36-63,000	94.9 złoty
7 - 14ha	76	8,000	56-112,000	105.3 złoty
14ha이상	57	7,000	98,000이상	122.9 złoty

資料 Anatol Brzoza, "Zagadnienie opłacalności produkcji rolniczej w gospodarce chłopskiej," in Z. Kozłowski, ed., Dyskusja o cenach rolnych Ciąg dalszy (Warszawa: kwia, ka : Wiedza, 1959), pp. 24, 25.

雇傭 형태로 都市工業부분으로 전환하거나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國家의 都市化와 工業化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專業小農과 都市의 工業勞動者 사이의 갖가지 형태로 移動을 하게 되었다. 都市化와 工業化에 따라 非農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小規模의 土地를 소유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1950년과 1960년 사이에 새로 土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433,000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2 ha 미만의 規模가 82%나 되었다. 이와 같은 모든 細分化는 農民·勞動者 問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크게 했다. 農民·勞動者는 非農業部門에 職業을 얻을 때 처음에는 農事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勞動效率을 높일 방법이 없어 粗放的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끝났다. 農民 勞動者들은 農土를 적절하게 이용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土地 중 일부분을 팔게 되며, 農村의 慣習에 따라 그의 土地가 있는 都市 근교에서 살기를 원하게 된다.

都市 및 工業部門은 農業으로부터 良質의 勞動力을 빼내 감으로써 農業을 쇠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종 農業地域을 쇠퇴시켰다. 1960년 플로크 地方에 마소비안 精油 및 石油化學工場을 건설하고, 소련으로부터 原油를 가져오는 「우정의 線」을 가설했을 때 플로크地方의 農村人口는 都市工業의 심각한 영향을 받아 相對的으로 감소하였다. 플로크 근교의 비알라스타라의 農村社會는 「農村工業社會」로 변화되었다. 플로크地方과 石油化學工場에서의 작업에 대한 심각한 전환은 村落地域人口의 社會經濟的構造를 都市의 機能構造에 의존시켰다. 農民勞働者 問題에 대한 文獻은 매우 많으며, 폴란드의 農村에서 都市로의 變換에 의해 발생된 많은 問題들이 變化만의 영향이기 보다는 폴란드의 政治, 經濟的인 여건의 結果이다. 政府는 農土에 대한 課稅基準을 실제 生産量보다는 生産性에 둠으로써 발생하게 된 問題의 非生産的인 效果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낭만적이거나 投機的인 이유로 土地를 소유하는 것은 점차 불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좀 더 많은 私有地가 社會化部門으로 전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農村의 過剩人口 때문에 그리고 후에는 勞動力의 不足 때문에 야기된 폴란드의 낮은 農業生産性은 무엇보다도 아주 낮은 수준의 機械化에 의해 개선되었다. 農村으로부터의 계속적인 離農 현상이 일어나자 農業機械化가 최우선의 農政目標로 설정되었으며 1976~80년 동안에 農機械供給을 위한 政府支出은 총 150억 즐로티에 이르렀다. 1974년말 폴란드의 트랙터 普及台數는 363千 대에 달했는데 그중 40%는 1971~74년 사이에 보급된 것이었다. 1974년에는 55千대, 1975년에는 58千대의 트랙터가 보급되었다. 폴란드의 트랙터工場은 URSUS뿐이다. 이 공장에서는 30마력, 55마력 그리고 85마력짜리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85마력 트랙터는 輸出用으로 제작되고 있다. 폴란드의 農業은 小規模이기 때문에 주로 30마력의 크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보다 작은 규모의 트랙터를 보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社會化農場은 주로 55마력의 트랙터를 구입하고 있다. 1974년 10월 URSUS는 마세이 페르구선 퍼킨스 會社(MFP)와 새로운 트랙터 工場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MFP트랙터 工場은 바

르샤바 근처에 건설될 계획이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트랙터는 「마세이 페르구선」商標로 수출될 예정이다. 1978년 URSUS에 의한 트랙터 生産量은 66천 대로 추산되고 그중 15천대는 「마세이 페르구선」商標가 붙여질 것이며, 1980년 生産推定量은 100천 대이며 그중 75천 대가 「마세이 페르구선」製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마세이 페르구선」의 製品이 모두 수출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国内市場의 트랙터 供給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마세이 페르구선은 앞으로 폴란드 農業을 개선하기 위한 道具를 좀더 많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폴란드의 農業은 他産業部門과의 聯関体系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農業은 아직도 国民總生産(GNP)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經濟發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農業에서 사용된 工產品은 6%에 지나지 않았으며, 서비스部門까지 고려한다면 農業에서 소비되는 他産業 生産財貨는 5%에 불과하다. 이러한 狀態를 개선하는 데는 두 가지 方法이 있다. 農業生産性的 增大를 위해서는 工業 및 서비스部門에서 생산된 財貨가 農業部門에 보다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農産物이 輸出 또는 消費되기 전에 加工過程을 거칠 필요가 있다. 農業部門間的 生産要素 移動은 앞으로 農業의 生産性向上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는 東歐圈 國家 중 農業의 機械化가 가장 미흡한 地域이다. 이 두 國家의 農業은 畜力의 依存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에서는 機械에 대한 畜力과 人力을 機械로 代替시키는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더라도 폴란드의 機械化速度는 느린 것 같지는 않다.

農業團體들이 農機械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상태에서는 말(馬)은 이미 財産이 아니라 負債이다. 規模의 零細性과 半生計農的 狀態에 있는 農家經濟로 인해서 機械化가 저해되고 있지만 이는 급속한 專門化, 商業化 및 個別農民의 혼자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協同體(農業서클, 서클協會) 등에 의해 차츰 제거되고 있다. 말(馬)이 사라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作付体系의 生産的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폴란드 農村의 近代化를 위해서는 農業部門에 대한 서비스의 投入增大가 필요하다. 農村서비스 센터는 아직까지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플로르코 近郊의 비알라 스타라 地域에 대한 研究에 의하면 “서비스 센터가 없는 마을이 5 개나 되었고, 이 地域에서 가장 큰 마을로 1970년에 인구가 1,269名에 달했던 마스제우 듀지에 農業서클, 가계와 私設 대장간이 기껏해서 각각 한 개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서비스 센터의 密度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를 強化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政府의 政策立案者 들은 현재의 私營農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社會化農場의 模型에 맞춰 서비스 센터의 密度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많은 村落이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農村地域에서의 革命的인 變化는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폴란드 政府는 社會化 分野에 의해 部落에서 수행되고 있는 各種 서비스 이외에 훈련된 農經營者들을 주축으로 한 정규적인 指導事業인 소위 農村서비스를 갖고 있다. 폴란드 聯合勞動者黨의 中央委員會 9 차總會에 의해 農村서비스가 農業서클協會로부터 地方議會로 移管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農村서비스는 農民들과 보다 친숙하게 되었다. 農經營者들은 農業서클을 통해 활동을 했지만 俸給은 農業서클協會의 郡支部에서 받았다. 그들은 地方에 체재하면서 國家를 위해 직접적인 활동을 했다. 이처럼 農村서비스가 農民들에게 친근하게 전환되고 農産業의 專門家들이 洞單位 議會로 배치됨으로써 地方의 農業서클은 보다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農業서클, 農村서비스, 그리고 地方議會의 活動을 統合하는 것은 農業政策의 效率的 達成을 위한 가장 중요한 條件 중의 하나였다. 폴란드의 地方行政에는 많은 복잡한 變化가 있었다. 이런 變化의 意味는 의심할 나위 없이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分析은 政治學者들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變化를 農業의 立場에서 살펴보면 이는 政府가 農業過程(發展의 의미까지 포함)에 대한 行政的 監督을 郡單位로부터 洞單位에 이르기까지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州와 郡의 전체 面積體系가 변화하여 과거의 道 보다는 적고, 과거의 郡보다는 큰 그 중간 形態가 형성되었다. 예전의 郡은 대부분 수 많은 작은 洞으로 바뀌었다.

農民들의 土地에 대한 愛着이 전에 비해 약해지게 된 것은 그럴 만한 合理的인 理由가 있다. 部落民들은 教育의 增大로 인하여 土地가 단지 다른 개인적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社

社會主義 폴란드에 있어서 土地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빈약한 手段이다. 그러나 土地에 대한 愛着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또한 土地를 運用하고자 하는 意慾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폴란드의 農村 靑少年들이 農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工場에서 職工으로 일하거나 혹은 심지어 工事場에서 막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都市—工業의 價值에 대한 宣傳으로 인해 오늘날의 近代社會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事情으로 私營地가 더욱 國營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또한 機械化 특히 酪農部門의 機械化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을 것이다.

폴란드 農業을 研究함에 있어서 해석상 범하기 쉬운 두가지의 誤謬가 있다. 첫째 오류는 私營農分野를 포함한 모든 農業部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變化, 즉 農業이 社會主義를 지향하고 있는 事實을 過小評價하거나 무시하는 데 있다. 두번째 오류는 폴란드의 私營農은 國民經濟의 모든 挑戰을 견뎌내는 고유한 힘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는 어쨌든 사실이 아니다. 私營農은 商業社會 이전부터 좌절을 겪으면서도 명목을 유지하며 살아 남은 그의 말(馬)처럼 점차 사라지는 部類이다. 에너지 危機에도 불구하고 그는 앞으로도 이전의 狀態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關係에서 폴란드는 獨逸과 蘇聯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앞서의 불리한 狀況은 최근에 와서 다소 유리하게 되었다. 蘇聯은 폴란드가 평온한 狀態를 유지하는 條件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결국 蘇聯은 엘베江을 감시하기 위해 폴란드를 가로지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東獨政府는 폴란드의 어떠한 불안이라도 東獨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게 되었다. 東獨의 指導者들은 國境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서 조그마한 불안이라도 있을 경우 그들과 깊이 關係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東獨政府는 폴란드의 價格上昇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데르江 東쪽에서는 모든 것이 평온하다는 것을 그들의 國民들에게 즉각 납득시켰다. 蘇聯이 자애로운 微笑를 보내고 東獨이 아마도 그들의 높은 農業生産性を 폴란드로 이전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農業生産성이 증가하고 消費者 供給이 증대하게 되어 相對的인 평온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消費者들이 만족하

지는 않을 것이지만 暴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構想은 여전히 커다란 疑問으로 남아있으며, 거기에는 매우 다른 結果를 가져올 많은 要因들이 內在해 있다. 그 制度는 그 自体内에 메카니즘의 均衡을 유지시켜 주는 不定的인 피드백을 갖고 있다. 폴란드에서 消費者들의 不安이 오래 지속될 경우 이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이를 견뎌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不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供給의 改善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까지 폴란드 農土의 거의 절반이 社會化 部門으로 될 수 있다는 事實로는 重要的 社會不安이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序頭에서 언급했듯이 1980年の 特別 生産目標은 달성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폴란드의 農業은 生産性의 增大와 個別營農으로부터 集團營農으로의 급속한 變化라는 2가지 過程의 길을 따라 계속하게 될 것이다.

海外農業資料16

폴란드의 農業問題와 그 展望

1981년 7월 25일 발행

發行人 金 甫 炫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3-135호

전화 965-7312~5 값 500원

印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